윤장현 귀국 피의자로 검찰 출석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등 오늘 조사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구속 기소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수억원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네팔에서 급거 귀국, 검찰 조사를 받는다.

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은 10일 오전 10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출국해 21일 봉사일정을 모두 마쳤지만, 현지에 머물다가 이날 새벽 4시 4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검찰은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20여분간 조사를 마친 뒤, 다음날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시장은 귀국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소명할 것은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이 윤 전 시장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윤 전 시장이 받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현재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모씨(49·여)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4억5,000만원을 사기 당하고, 김씨 자녀들 취업에 관여한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은 돈의 출처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전거래가 이뤄진 이유, 채용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윤 전 시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이날 채용청탁 사건에 연루된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등을 불러 청탁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기범 김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을 청탁하자 당시 현직 시장 신분이던 윤 전 시장이 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은 김씨 아들의 경우 임시직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정규직 전환을 타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해당 산하기관 관계자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만류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산하기관과 사립학교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윤 전 시장을 속여 돈을 뜯어낸 김씨를 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김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차례(열흘) 더 연장하지 않고 바로 기소한데 대해 문자메시지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공천 대가라면 은밀한 거래인데 수억원을 대출받아서 버젓이 내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며 "말 못할 상황에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는 말에 속아 보낸 것뿐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고광민 기자

'집회·시위' 갈등 조정능력 한계

광주·전남교육청, 전문직-일반직 불평등 문제 해소 난항

광주·전남 교육현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전문직-일반직 등 불평등 해소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진보교육감 체제에서 커진 기대감에 집회·시위는 이어지지만, 교육청의 갈등 조정능력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조리사·과학실무사·교무실무사·교육복지사·방과후전담·사서 등 27개 직종 중 교섭대상이 아닌 일부를 빼고는 대부분 교육청과 의견차이를 보였다.

노조 관계자는 "말로는 교육가족이라면서도 교사·정규직 공무원과 비교해 비정규직 임금은 60%대에 불과하다"며 "영양사·사서·전문상담사 등 교원과 유사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차별은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요구를 모두 수용하려면 추가로 400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전남 유치원 기간제교사들은 지난 4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집회하고 자신들을 돌봄 전담사로 채용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최근 조직개편 추진과정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했다. 이례적인 교육공무원들의 집회에는 1,200여명(노조 추산)이나 참석하기도 했다.

보건 행정 업무를 행정국으로 이관하고 시·군 교육지원청마다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조직개편안에서 일반직의 희생을 강요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결국 내년 3월로 예정된 조직개편은 내부 반발과 도의회 심의 거부로 무산됐다. 복잡하게 꼬인 교육주체간 역학관계, 인력·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여러 갈등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용운 전남교육희망연대 집행위원장은 "교육감 직선 3기까지 오면서 내재됐던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교육청을 중심으로 어수선하게 표출되면서 불가피하게 집회·시위가 많아진 측면이 있다"며 "교육당국은 소통능력을 발휘하고 각 교육 단위는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대의에 따라 양보·타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5·18구속부상자회 새 구성

신임 회장에 김대동 씨 선임

최근 집행부의 횡령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있는 5·18구속부상자회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지만 조직운영 갈등 내홍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9일 구속부상자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서구 5·18기념센터 대동홀에서 비상임시총회를 열고 양희승 회장 등 집행부의 해임안을 의결하고, 김대동 전 나주시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사 10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하는 등 새 집행부를 꾸렸다.

이날 단독으로 입후보해 81명의 투표자 중 과반 이상에게 찬성표를 받아 회장직에 오른 김 회장은 "양희승 적폐를 청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5·18유공자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임시총회를 통해 신임 집행부가 구성됐지만 조직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임시총회에 반대하는 회원들은 "비대위가 밝힌 참석자가 실제보다 뻥튀기됐고, 회원이 아닌 사람을 회장에 들여보냈다"며 "이날 총회는 불법이다.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찬 기자

활력있는 조직문화 만든다 광주시 북구는 지난 7~8일 양일간 무등산 생태탐방원에서 조직의 핵심관리자인 5급 이상 간부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소통·참여·혁신을 통한 활력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북구청 제공

비아중, 고교 전환에 통학불편 해소 기대

일부 학부모 반대 변수

광주 비아중학교가 고교 전환을 추진한다. 사립학교의 고교개편 첫 사례로, 만성적인 광산구 고교 원거리 통학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비아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무양서원은 최근 비아중의 고교개편 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2020학년도부터 5개 학급 신입생을 받아 2023년까지는 고교로 완전히 전환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중학교의 경우 2019~2020학년도에 기존 8개에서 4개 학급 정원만 채우고 2021학년도부터는 신입생을 받지 않을 계획이다. 중학생 수요는 인근 월계중 등으로 분산한다.

광산구는 고교생 원거리 통학률이 높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학교 신설이 쉽지 않다.

광산구에서 다른 구로 통학하는 고교생은 2016년 1,382명, 지난해 938명, 올해 798명이었으며, 내년에는 1,000명을 다시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비아중 인근 일부 초등학생 학부모 등의 반대를 극복하고, 월계중의 동의를 구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미애 기자

'뇌물수수' 콘텐츠진흥원 직원 징역 4년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 A씨(45·과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가상현실(VR) 영상 촬영·제작 업체 대표 B씨(44)에게도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4억 21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관급자재 계약업무를 수행하며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B씨도 4억원이 넘는 알선비를 받고 그중 4,000만원을 A씨에게 뇌물로 건넸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고광민 기자

차량주인이 뒷좌석에 타고 있을 줄이야

도리깨

○…30대 차량털이범이 도로에 주차된 차안에 주인이 있는지 모르고 무턱대고 문을 열었다가 발각돼 경찰에 인계.

○…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39)는 지난 7일 새벽 0시 50분께 서구 한 아파트 주변 도로에 있던 차량을 털기 위해 문을 열었으나 뒷좌석에 타고있던 차주 B씨(37)에게 발각돼 도주했으나 결국 B씨에게 붙잡힌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A씨는 도주 과정에서 B씨의 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했다"며 "절도행각이 들통나자 '담배를 피우기 위해 문을 열었다'고 말해 정말 황당했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김종찬 기자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